

TOPIC: Strength for Hope
SERIES: Prayers 2
SPEAKER: Bo Stern-Brady
DATE: January 12, 2025

주제: 희망을 위한 힘
시리즈: 기도 2
강사: 보 스텐-브래디
날짜: 2025년 1월 12일

성경 말씀: 빌립보서 4:6-7, 이사야 40:31, 사도행전 4:31, 마태복음 11:28-30, 시편 27:4-6

Scripture: Philippians 4:6-7, Isaiah 40:31, Acts 4:31, Matthew 11:28-30, and Psalm 27:4-6

Key Text/memory verse:

Thesis: Prayer is your relational lifeline to Jesus' strength, especially when life feels overwhelming.

Synopsis: Between sleepless nights and endless to-do lists, life can feel exhausting. Prayer invites us to trade our worries for God's peace. It renews our strength and hope for the journey ahead.

Main Points:

- Peace replaces panic: Prayer calms the storm within and guards your heart (Philippians 4:6-7)
- Strength to follow Jesus: Waiting on God through prayer renews our energy and hope (Isaiah 40:31, Acts 4:31)
- An invitation to rest in Jesus' protection: He offers rest, support, and refuge to those carrying heavy burdens (Matthew 11:28-30, Psalm 27:4-6)

Everything starts with relationship. Everything ends with relationship. Our motivation. Our love. Our actions. Our dreams. Our desires and delights. Especially our prayer...begins and ends with relationship.

In 2017, I was speaking a lot at conferences and churches, which I had been doing that for twenty years and it was really important to me. My schedule was intricately worked around my job at Westside Church and all the other dates that I was trying to fill with speaking gigs. I would move heaven and earth to show up for people who asked me to speak. I was a widow, it was my job and I also loved my job. But then I met my now husband and we started dating and it was the first time I had dated in thirty-five years and the whole calendar shifted. NOW, I would move heaven and earth to save our weekends together or go to his company Christmas party or make it to Beaverton for one of his kids' birthdays. NO one had to guilt me into this. They didn't say, "Really, Bo, if you want your relationship with Cliff to grow, you have to commit at least three hours a week on the phone. I didn't have to put a habit tracker on the wall. I didn't need to write it into a to-do list. My whole heart rolled in the direction of relationship with Cliff. My relationship with Cliff - and all the driving back and forth three hours each way - never once drained me. It was all life giving. It fueled me. It strengthened me and it strengthened cliff. We decided we could parent ten kids together better than we could each parent our own alone. It was, and remains, true joy.

Real relationship is like that. It is sourced in joy and delight. Other relationships might be sourced in guilt - you have to visit your great aunt once a month. Or they might be sourced in conflict - you have to meet with a frustrating coworker, or they may be sourced in fear - you have to go to the dentist or else. But those relationships drain the strength and the life from our lives. REAL relationship ADDS to strength and life. REAL relationship is based in joy and delight - it definitely runs through other cycles as well, because growing relationships faces all kinds of seasons, but it is sourced in mutual delight.

핵심 구절/기억 구절:

논제: 기도는 인생이 벅차게 느껴질 때, 예수님의 힘과의 관계적 생명선이 되어줍니다.

개요: 잠 못 이루는 밤과 끝이 보이지 않는 할 일 목록 속에서, 인생은 지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의 평화로 바꾸는 초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과 희망을 새롭게 하여 다가오는 여정을 준비시킵니다.

주요 내용:

평화는 공황을 대체합니다: 기도는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고 마음을 지킵니다 (빌립보서 4:6-7)

예수님을 따를 함: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의 에너지와 희망이 새로워집니다 (이사야 40:31, 사도행전 4:31)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서 쉬라는 초대: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쉼과 지원,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11:28-30, 시편 27:4-6)

모든 것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관계에서 끝납니다. 우리의 동기, 사랑, 행동, 꿈, 욕망과 기쁨, 특히 우리의 기도... 모든 것이 관계에서 시작하고 끝납니다.

2017년에 나는 교회와 컨퍼런스에서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20년 동안 해왔고, 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내 일정은 웨스트사이드 교회에서의 직무와 내가 맡은 다른 강의 일정에 맞춰 정교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강의를 부탁하면 하늘과 땅을 다 바쳐서 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과부였고, 그것이 내 일이었으며, 나는 내 일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건 내가 35년 만에 한 첫 데이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모든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주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하늘과 땅을 다 바쳐야 했고, 그의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거나 그의 아이 생일을 위해 비버튼에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걸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보, 클리프와의 관계를 성장시키고 싶다면 매주 전화로 최소 세 시간은 대화해야 해"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일 목록에 추가할 필요도 없었고, 습관 추적기를 벽에 붙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 온 마음은 클리프와의 관계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클리프와의 관계는, 그리고 그가 집까지 3시간씩 왕복하는 일이 나를 지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생명력이 넘치는 일이었고, 나를 채워주었으며, 나에게 힘을 주었고, 클리프에게도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10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각자 따로 양육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여전히, 진정한 기쁨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과 기쁨 속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관계들은 죄책감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큰 이모를 방문해야 한다거나, 갈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답답한 동료와 만나는 일이라든지, 또는 두려움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치과에 가야 한다거나. 그러나 그런 관계들은 우리의 힘과 생명력을 빼앗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힘과 생명을 더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기쁨과 기쁨 속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다른 주기를 거치기도 하지만, 결국 상호 기쁨에서 시작됩니다.

One of the most promising verses in the Bible is in Philippians 4.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The Lord is near.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Philippians 4:4-7

This verse has a very clear punchline: Peace.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We talk about this all the time here at B4. Shalom. Peace that transcends every circumstance and surrounds us in every story and every storm. And I don't like to bullet-point the deep waters of the Word of God but this verse lends itself well to a one/two/three approach to peace and strength, though we could probably take them in any order.

1. **Rejoice Always**
2. **Fear Nothing**
3. **Pray about Everything**

Couldn't be simpler, right? :)

It begins with: Rejoice in the Lord. *Always*. This is the starting point for everything else in life. Rejoice in the Lord. Delight in him. Building religion around duty - follow the rules so God won't be mad at you - since the beginning of time. The Jewish people especially had built around this idea of obey the Law to keep God on your good side. Now, Paul introduces an idea that subverts so much of that theology: Rejoice in the Lord. Delight in Him. Always. No matter what. Rejoice in him. This is the birthplace of our relationship with Him.

And also - and this is the coolest thing ever - it's also the nature of his relationship with us:

14 Sing for joy, O Daughter of Zion;
shout aloud, O Israel!
**Be glad and rejoice with all your heart,
O Daughter of Jerusalem!**

15 The LORD has taken away your punishment;
He has turned back your enemy.
**Israel's King, the LORD, is among you;
no longer will you fear any harm.**

16 On that day they will say to Jerusalem:
"Do not fear, O Zion;
do not let your hands fall limp.

17 The LORD your God is among you;
He is mighty to sa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gladness;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Zephaniah 3

Why is it that we choose duty over delight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 or with anything? Duty is an easy measuring stick for whether or not we're doing it right. If I'm following the rules, I'm inside the fence of His love. If I break the rules, I'm not. It's easy to judge who's in and who's out. But relationship is different than that. How many of you have kids you love? How many of those kids have occasionally broken your rules? Why do you still love them? I would hate it if our kids only showed up at our house for dinner because they're afraid of what will happen if they don't. I want them to want to be with us because we want to be with them. Mutuality of joy is essential for truly life-giving relationships.

We're going to swing back to this concept in a moment, but let's stick with Paul and Philippians for a bit. Number two is very challenging and frankly, pretty unrealistic: Fear nothing.

성경에서 가장 희망적인 구절 중 하나는 빌립보서 4장에 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4-7

이 구절의 핵심은 매우 분명합니다: 평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B4에서 이 말씀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살롬.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모든 이야기와 폭풍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는 평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간단히 요약하고 싶지 않지만, 이 구절은 평화와 힘에 대한 1, 2, 3 접근법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순서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1. 항상 기뻐하라
 2.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3.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라
-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죠? :)

먼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의무로 종교를 만드는 것, 즉 규칙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 이는 인류 역사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법을 지켜 그분의 마음에 들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신학을 전복하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분을 기뻐하라. 항상.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분을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맺는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가장 멋진 사실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14시온의 딸아, 기뻐하며 부르짖어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의 딸아!
 15주께서 네 죄값을 치르셨고,
 네 원수를 물리치셨다.
 이스라엘의 왕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는 더 이상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16그 날에 예루살렘은 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너희 손이 늘어지지 않게 하라.
 17너희 가운데 주 너희 하나님이 계시니,
 그는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기쁨으로 너희를 기뻐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너희를 고요하게 하시고,
 노래로 너희를 기뻐하시리라."
 스가랴 3:14-17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무를 기쁨보다 우선시할까요? 의무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쉬운 기준이 됩니다. 내가 규칙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고, 규칙을 어기면 그 밖에 있게 됩니다.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그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그 자녀들이 가끔 규칙을 어긴 적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단지 규칙을 어길까 봐 저희 집에 저녁 먹으러 오는 것이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희와 함께 있고 싶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상호적인 기쁨이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관계의 본질입니다.

이 개념을 잠시 뒤에 다시 다룰 예정이지만, 우선 바울과 빌립보서로 돌아가 봅시다. 두 번째는 매우 도전적이고 솔직히 말하면 거의 비현실적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Philippians 4:

Don't be anxious. Fear *nothing*. This sounds like a command. And we like to put commands in the category of the things that make our Dad mad when we do them. But when we dig beneath the surface, we will ALWAYS find that God's instruction is tied to His love for us. His rejoicing over us. Because he loves us, He says, Fear Nothing. If we hop out of scripture and into science for a minute, we'll figure out why. Anxiety on the body impacts us in the following ways - and this list is by no means exhaustive:

- A sense of doom
- Headaches
- Irritability
- Breathing problems
- Increase in blood pressure
- Muscle aches and other pains
- Panic attacks
- Depression
- Extreme fatigue
- Pounding heart
- Upset stomach
- Paralyzing fear

Does this sound like the abundant life Jesus promised? I would also say anxiety causes us to make bad decisions and bad decisions create yet more anxiety. God's instruction to refuse giving in to anxiety is rooted entirely in his love for us and our peace.

Look again at the Zephaniah verse:

Do not fear, O Zion;
do not let your hands fall limp.

17The LORD your God is among you;
He is mighty to sa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gladness;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Zephaniah 3:16-17

Do not fear. Don't let your hands fall limp - don't quit contending, don't quit fighting for victory - why? Because the LORD already rejoices over you. He already LOVES YOU. That is all the knowledge we need to understand that anxiety is a waste of our time and a danger to our freedom, healing and flourishing.

Psalms 139 gives us a unique and beautiful behind-the-scenes look at how God feels about us. Part of it says this:

How precious are your thoughts about me, O God.

They cannot be numbered!

18I can't even count them;

they outnumber the grains of sand!

And when I wake up,

you are still with me!” Psalm 139:17-18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6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마치 명령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명령을 보통 '아빠가 화낼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명령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항상 그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성경을 벗어나 과학을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염려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록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 불길한 느낌
- 두통
- 짜증
- 호흡 문제
- 혈압 상승
- 근육 통증 및 기타 고통
- 공황 발작
- 우울증
- 극심한 피로
- 심장이 두근거림
- 위장 장애
- 마비된 두려움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처럼 들리나요? 또한 저는 염려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고, 잘못된 결정은 더 많은 염려를 낳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에 굴복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평화에서 나옵니다.

스가랴의 구절을 다시 한 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너희 손이 늘어지지 않게 하라.

17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기쁨으로 너희를 기뻐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너희를 고요하게 하시고,
노래로 너희를 기뻐하시리라."

스가랴 **3:16-17**

두려워하지 마라. 손이 늘어지지 않게 하라 - 즉,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승리를 향해 싸움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너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너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염려가 시간 낭비이며 우리의 자유, 치유, 번영을 위협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입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해 독특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 수를 셀 수 없습니다!

18내가 셀 수도 없고,

그것은 모래 알갱이보다 많습니다!

내가 깨어날 때,

주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39:17-18**

God is thinking about me? So many thoughts that they outnumber the sand?

Whenever I think about someone that much, it's because I am worried about them. I toss and turn and plot and fret. But God fears nothing. His thoughts about you contain

NO fear. He's not worried. He's just very certain of his love for you. He's certain that He can be counted upon to care for you. The Lord is my shepherd, and he's not afraid of anything. This alone gives courage and strength. I used to think I could put my life together with good planning or smart thinking or clean living - but then a fierce disease swept into our lives and I was left without the security I had counted on. Widowed. Single mom. But still loved by a God who loved me but was not worried about me. We don't fear because He doesn't. And if we want to fear, he won't be mad, but we won't be free.

Do you see how rejoicing in Him leads to the elimination of anxiety and that brings us to the third part: Pray about everything.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Philippians 4

Every situation. This can sound challenging, but only if you view prayer as an activity that is independent from your relationship with God. Before meals or before bed, "Now I lay me down to sleep..."

But prayer is relationship. It's a life lived out in front of God. It's organic and beautiful and woven into our days like water flows through sand. At least it can be...if we make it our aim to rejoice in Him.

To be a Christian without prayer is no more possible than to be alive without breathing. Martin Luther

Prayer is as natural as breathing. It's an inhale/exhale of joy and questions and requests and dreams and desires...expressed in words and sighs and songs and thoughts. When we mix ANY amount of performance into the place of prayer we have stopped rejoicing and delighting in God.

The idea of "I don't want to bother God with this" is not a prayer problem, it's a relationship problem. I text my husband countless times throughout the day to tell him the most inconsequential things. Things I would never tell anyone else because I want other people to think I'm smart and intelligent and busy...but I tell Cliff, because he knows me and loves me. Because I can't wait to hear what clever comeback he will give. Because he's my person and this a relationship I delight in. I tell God all the small things too. Because this is a relationship in which I delight.

Here's a rule of thumb by Corey Ten Boom:

"Any concern too small to be turned into prayer is too small to be made into a burden. - Corrie Ten Boom

I pray for one reason. Truly. Just one reason. Because I love Him and I love being His friend. Making requests is part of that. Thanksgiving is part of that. Telling dumb jokes is part of that. Praying for justice is part of that. But all of it - ALL of it - is sourced in the delight of friendship. He is the one friend who has been with me always and in all ways. He is the one friend who listens at 3:00 a.m when I can't sleep or on Murray at 5p.m when the traffic is at a

standstill and I have had a hard day being a pastor. He is the friend that listens and laughs with me, welcomes my grief and sorrow, heals my heart and restores my soul. All of this is prayer. It's strengthening, it's life-giving.

28“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29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30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Matthew 11:28

Do you hear the exchange taking place here? Your weariness for his rest. Your burden for His strength. That's prayer. That's what happens in the place of prayer. (Except when it doesn't...we'll talk about that in two weeks.) Practical: I trade _____ for _____. I trade _____ for _____. Will it happen in a moment? Maybe not...but that's prayer. You've launched a request toward heaven and invited divinity into your humanity. You've welcomed the intervention of Jesus. This is how every good thing begins. This is the divine exchange that happens in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그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많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걱정될 때입니다. 밤새 뒤척이며 걱정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 가지신 생각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은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나는 한때 좋은 계획, 지혜로운 생각, 바른 삶으로 내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질병이 우리 삶을 덮쳤을 때, 내가 의지하던 안전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대해 걱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더라도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로워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불안감을 없애는지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끕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모든 상황에서 말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활동으로 여겨진다면 이 말씀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식사 전이나 잠들기 전에 “이제 누워 잠이 듭니다...” 같은 기도를 떠올리기 쉽죠. 그러나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유기적이고 아름답고, 모래 속을 흐르는 물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살아 있는 것과 같다.”기도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기쁨, 질문, 간구, 꿈, 그리고 소망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나 한숨, 노래나 생각으로 표현됩니다. 기도에 어떤 형태로든 ‘성과’를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나는 남편에게 하루 종일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을 수도 없이 문자로 보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똑똑하고 바빠 보이고 싶어서 절대 말하지 않을 것들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나를 알고 사랑하니까요. 또 그가 어떤 재치 있는 답장을 할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도 사소한 것들을 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코리 텐 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로 바꾸기에 너무 사소한 걱정은 짊어지기에 너무 사소한 짐입니다.”

나는 한 가지 이유로 기도합니다. 정말로,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우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청을 드리는 것도 그 일부이고, 감사도 그 일부이며, 우스운 농담을 드리는 것도 그 일부입니다. 정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친구로서의 기쁨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내 곁에 계셨던 친구이십니다. 새벽 3시에 잠들지 못할 때나 교통 체증에 갇혀 힘든 하루를 보낸 오후 5시에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내 슬픔과 고통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며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힘이 되고 생명을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28-30)

여기서 일어나는 교환을 들으십니까? 당신의 피곤함이 그분의 쉼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짐이 그분의 힘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신성한 교환입니다.

